

2020 주일메세지

지금은 마음정리와 주변정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1. 욕심이 있으면 불안하고 두렵다.

(1) 욕심과 죄

[로마서 6:23]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죄의 값'을 받는 심판이다.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판결을 말한다. 심판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일이나 상황, 문제 따위를 자세히 조사하여 잘잘못을 밝힘"으로 정의되어 있다.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때이다. 즉, 심판이 마지막이라는 것이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죄의 문제'로 다룬다. 그렇다면 죄의 뿌리는 무엇일까?

[야고보서 1:15]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은 너무나 명확히 죄의 뿌리가 욕심이라 말한다. 욕심이 '뿌리'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뿌리는 모든 것의 근본이다. 욕심은 죄의 뿌리이다. 뿌리가 제거되지 않는 한 '죄'의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 욕심이란 무엇인가? **어떠한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다.** 욕심이 왜 결국 죄를 낳게 되고,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

(2) 욕심과 하나님의 창조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며 창조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충만한 상태를 말한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이다. 서로 모양은 다르지만 하찮은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가치가 서로 존중된 상태이다. 만물이 '충만함'에 이른 상태이다. 그 충만함과 만족함에는 '갈등'이 없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욕심은 이 충만함을 인위적 힘으로 파괴한 것을 말한다. 인위적 힘의 중심에는 '사람의 욕심'이 있다. 마귀는 사람에게 '욕심'의 공간을 만들었다. 그 욕심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도록 유혹했다.

"하나님 보다 월등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만족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 지금에 만족하지 마라.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네 마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네 마음안에 있는 결핍을 채워라. 너를 보아라. 지금에 만족하는가? 네 안에 있는 결핍을 보라. 하나님 보다 너는 열등한 존재 아닌가? 그 열등함이 바로 네 결핍이다"

만족하지 못한 내 안의 결핍을 본 순간이 바로 '욕심'이 잉태된 순간이다. 잉태는 출산과 연결된다. 정상적인 의미에서 '잉태'란 마음의 간절함을 말한다 (아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욕심'의 본질이다. 욕심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절한다. 모든 것이 다 틀어지는 순간이다. 그래서 파괴되는 것이다.

(3) 영적원리 - 욕심이 있으면 불안하고 두렵다.

욕심이 있으면 불안하고 두렵다. 거스를 수 없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욕심은 만족할 수 없는 마음이다. 그래서 항상 부족함을 느낀다. 채워도 만족이 없다. 왜 그럴까? 욕심은 결핍의 마음이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상태) 중증의 병이다. 욕심이 무서운 이유는 원하는 바의 '노예'가 되기 때문이다. 이미 중독되어버린 상태이다. 통제불능의 상태를 말한다. 결국 욕심의 결과는 패망이다. 그 불안함과 두려움은 결국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날날이 드러난다.

(4) 예수님 - 욕심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은, 사람안에 있는 욕심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뿌리인 욕심을 제거하신 것이다. 그 상태가 바로 욕이 영이 된 사건이다. 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영적인 존재로 구원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와 기쁨'이 실재가 된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이다. 만족함을 얻었다는 것이다. 결핍이 없어진 이유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발견하고, 진리가 절대가치로 내면화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2. 흔들림의 때

(1) 진동의 때

[히브리서 12:26-27]

26 그 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27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진동의 때이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에 진동이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흔드신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흔들리는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남아있게 하시기 위함이다. 흔들리는 것은 무엇인가? 욕심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욕심이 흔들림의 원인이다. 불안함의 원인이다.

(2) 안나 - 단순해져야 한다.

진동의 때, 고난과 고통의 때를 이겨낸 인물이 있다.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안나'라는 여인이다.

[누가복음 2:36-38]

36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일곱 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37 과부가 되어서, 여든네 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38 바로 이 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안나는 히브리어로 한나이다. '안나(Avva)'는 히브리어 '한나(חַנָּה)'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인데,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당시 조혼의 전통으로 본다면 안나는 10대 후반에 결혼해서 20대 초반에 과부가 된 여인이었다. 성경은 그때부터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온 안나를 주목한다.

모든 것이 흔들려 불안해하는 이때 안나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안나가 처한 시대적 상황은 믿음을 지켜내기가 지금보다 몇십 배로 힘든 때였다. 신앙에 대한 탄압이 있었다. 과부가 된 젊은 여인이 60년 가까이 지내온 삶을 생각해보라.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안나는 결국 3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를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놀라운 일이다. 안나의 삶이 이 시대에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충성스럽게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온 이유는, 안나의 삶에 ‘욕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3) 재정비로 지속성을 만들라.

결국, ‘지속성’은 기초의 견고함에 대한 문제이다. 견고하지 않으면 외부의 바람에 흔들린다. 성경에서 말하는 견고함과 강건함은 속사람의 강건함을 말한다. 안나의 삶 가운데 있었던 어려움과,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안나의 마음과 삶이 정돈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이 정돈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없도록 주변정리가 되어 있었다. 이러한 단순함의 삶이 결국 끝까지 가게 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때 안나의 삶으로부터 오는 ‘단순함의 영성’이 내 신앙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마음을 정리하고 주변을 정리하여 ‘재정비’ 해야 할 때이다. 단순하게 하자.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고, 하나님을 만나처럼 단순하게 섬기는 삶으로 재정비되는 시간이 되도록 하자. 그 사람이 결국 이 진동의 때를 통과하여 승리를 볼 것이다.